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9호 [루체 제23061호] 주제99 (2010)년 4월 19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풀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절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과 덤원을 이 땅우에 찬란히 톡피우시며 김일성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를 비롯한 군대

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여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예술조원들과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합창 <충성의 노래>, 선동과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이야기와 노래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대화시 <장군님의 비날론>, 너성 3종창과 방창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시랑송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너성독창과 방창 <발갈이노래>, 농악무와 북체창 <흥하는 내 나라>, 선동곡 <차표>, 소합창 <영원한 태양의 봄>, <당은 장군님의 품>, 시와 합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만대에 걸친 빛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기상과 억센 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혁명적 열정과 풍만한 정서가 넘쳐흐르는 공연을 통하여 눈부시게 개화발전하는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태양민족의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나는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아래 혁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자주의 항로를 따라 억세게 전진하여온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뜨거운 격정속에 들이켜보았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흠토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불도가니미냥 끊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

의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출연단체들에서 자기들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특색있는 공연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예술을 대중화할 때 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된 제2차 인민예술축전은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밟들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지향과 덤원이 전인민적송가로 울려피진 뜻깊은 축전무대였으며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준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수령의 노래, 혁명의 노래로 4월의 봄명절을 특색있게 장식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체 축전 참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로인민이 침다운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진정한 예술은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속에 있으며 혁명적예술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에 힘있게 고무주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중문화예술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양절에 즐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뜻깊은 태양절 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절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대장 우동우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원홍동지, 현철해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5인 시 <김일성장군찬가>, 노래련곡 <만경

대의 노래>, <당은 장군님의 품>, 실화곡 <영원한 보위자의 짐장>, 너성 2중창과 남성 4중창 <전선에서 만나자>, 혼성 4중창 <사랑은 내 조국에 증오는 원주에게>, 바스기타와 노래 <천리마 달린다>, 시와 합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투쟁행로와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당과 혁명의 고귀한 전위물들을 목숨바쳐 사수하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 갈 인민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짐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의식이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공연이 끝나자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달폐

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

하였다.

그이께서는 만수대예술단의

창립후 오늘까지 조선로동당의

문에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특색있는 훌

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공연

함으로써 주체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

제네바에서 진행

【평양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태양절에 즈음하여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10일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스위스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하여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게 된다.

소조는 또한 주체사상연구로론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소조직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세계적 범위에서 주체사상을 널리 보급하는 적극 기여하며 조선인민과의 현대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공부화시킨다는 주체사상과 혁명적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리며 주체사상과 개선전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체택되었다.





## 수령님 한품속에 영원히

윤두근

봄이 없고  
꽃도 없던 이 땅에  
광복의 봄을 안아오시고  
사회주의 꽃을 피워주신  
어버이 우리 수령님

한평생 품고계신 소원 다 꽂아  
우셨나니

그리움에 목마여 부르며

인민사랑의 그 봄  
인민행복의 그 꽃  
선군으로 지켜주시고  
일심으로 가꾸시며  
우리 장군님 바치신로고  
얼마라

말하라 사품처 흐르는 주체철  
이여  
폭포처 쏟아지는 비날론이여  
수령님 걸으신 길 다 걸으  
시고  
찾으신 고장을 다 찾아가시며

아버지 수령님!

장군님 꽂아주신 행복을

수령님 사랑으로 받아안

으며

김일성 우리 민족은 영원히

수령님 한품속에 삽니다

우리의

총

차영도

초야에 물고...

아, 인생의 너무도 많은것을 다

잃었어도

총! 총대만은 잃을수 없었으니

정녕 총대는 무엇이었던가

어려운다

이 땅에 선군의 지원을 열며

백두가 빛들어온다

20대 총대장군 김일성동지!

만고풍상의 그 한생에

이국의 산야에서 부모잃고 동생도

잃고

사랑하는 전우들을 이름모를

오, 총대!

인민은 눈물속에 터칩니다

그것은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

이였고

짓밟힌 이 나라 인민을 살리는

피타는 사랑이였거니

그 사랑, 그 정, 그 심장에 끌려

구름같이 모여든 수천수만의 심

장들이

수령님의 총대가 되여

주체의 총대 술을 이루었나니

오늘은 장군님의 손길 아래

백해해진

선군조선의 총대여

『우리의 총대 우에 평화가

있다!』

조국수호, 인민사랑의 이 총대

철학을

역사앞에 처음 내놓으시고

온 심장의 열파 정을 다해

평화의 세계를 지켜가는

만고 절세의 총대 장군

김정일선군령장!

그이 따라 백두산선군혁명총대는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가리라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의

## 숭고한 정신세계의 발현 각자 당원들과 근로자들

죽도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절세의 위인들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높이 밭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 리심을 보여주는 소행들이 수많이 꽂

펴나고 있다.

남포시 와우도 구역인 명원

간호원 송신실 등 무는 지난

10여년간 매일과 같이 항구구역에 높이 모신 어버이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동상주변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평양시 통성구역 통성 2동

64인민반에서 사는 조현순동

무와 그의 남편로영철동무는

지난 10여년간 어버이 수령님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영적이 깃들어있는 어운혁

명사적과 전승혁명사적지를

비롯한 20여개 단위의 혁명사

직지들에 많은 지원물을 보내

주었으며 관리 사업도 정성적으

로 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0년동안

해마다 휴가를 바쳐 1만

2400여명의 꽂워, 참나

물, 은방울꽃을 마련하여 혁명사적지들에 보내주었으며 올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2차에 걸쳐 많은 지원물을 어운혁명사적지에 보내주고 사적관판리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한 것을 비롯하여 혁명사적지를 빛내이는 사업에 깨끗한 향심을 바쳐가고 있다.

이밖에도 청진철도국 무산역 안내원 남성금, 남포시 강서구역 기산동 부양가족 오금순,

신의주시 개혁동 부양가족 김희란, 길주군 읍 부양가족 서성월, 온성군 세선리 부양가족 유경희동부를도 지성풀을 성의껏 마련하여 혁명사적부문들에 보내줌으로써 어버이 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도록 하는 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각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에서

발휘되는 이러한 소행들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순경한 향심과 의리로 밭들울 아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시위로 된다.

본사기자 정성일

## 불멸의 꽂에

## 비낀 신념과의 이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에서

전시대에는 태양절과 더불어 불태워온 부대 장병들의 열화와 같은 흠토의 마음과 뜨거운 지성이 전하게 승배되었다.

부대에서는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더욱 김일성화명명 45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로작 《김일성화성화》를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의 꽂이다. 일로부터 5돐이 되는 해에 진행되는 꽂축전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준비사업을 힘 있게 벌리었다.

위인청송의 꽂축전을 빛나게 장식해온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군인들은 제 1 2 차 김일성화축전에서도 특색있는 전시대를 펼쳐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김일성화를 재배하는 데서나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는 대서 인민대가 앞장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전시대에서

이어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헌없이 숭고한 경모의 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고르식물원에서 피어난 진귀한 꽃에 수령님의 존을 모시며 그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한 것은 인류를 위하여 그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루어하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세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인민들의 높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제 1 2 차 김일성화축전을 헌수한 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를 공식친선방문하고 계시던 이어이 수령님께서 당시 이나라 대통령이던 수카르노와 함께 보고르식물원을 돌아보신 그날로부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전시대에서 우대하고 만난 대사관성원은 이렇게 전시대를 더 화려하게 청성준비 사업으로 빛나고 있다. 이들은 회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았다.

우리 나라 주재 인도네시아의 새세대입니다. 하지만 불멸의 꽃은 세상의 자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인민들은 뜻지 않게 김일성화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전시대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김일성화

김일성화와 더불어 전시대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김일성화

그리고 그의 자부심이 가득 차왔다.

금본사기자 윤지혜 사진 전성남

## 대양과 대륙을 넘어

## 기네 『김일성화온실』 전시대에서

제 1 2 차 김일성화축전을 이제롭게 장식하며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기네 『김일성화온실』 전시대.

대양과 대륙을 넘어 불멸의 꽃을 앙고 사연을 묻는 참관자들에게 아부들레이디 알로 기네 『김일성화온실』 대표가 열정에 넘쳐 하는 이들의 불굴의 투정 모습에서 그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 수령님의 봄원, 우리 장군님의 리상 우리 앞장에서 꽂되었던 날과 달은 부대의 장병들이 어버이 수령님의 전군업적을 더욱 깊이 새기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밟아온다. 그들이는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만민의 열왕적인 환호에 대답해하는 장대한 김일성화축전을 전시대에 위대한 장군님의 앞장에서 꽂되었던 날과 달은 부대의 장병들이 어버이 수령님의 전군업적을 더욱 깊이 새기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밟아온다. 그들이는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만민의 열왕적인 환호에 대답해하는 장대한 김일성화축전을 전시대에 위대한 장군님의 앞장에서 꽂되었던 날과 달은 부대의 장병들이 어버이 수령님의 전군업적을 더욱 깊이 새기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밟아온다. 그들이는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확신하였다.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온갖 위인청송의 꽃이며 이 불멸의 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나고 있는 위인 흠모로, 위인청송의 꽃이며 이 불멸의 꽃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확신하였다.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온갖 위인청송의 꽃이며 이 불멸의 꽃을 찾았습니다.

본사기자

## 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전시대에서

그 영상을 우리에게 참관자들에게 전시대에 대한 해설을 맡기 때때로 흥미로운 정을 다 기울여 김일성화를 펴워나갔다.

여기에는 김일성화축전을 전시대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땅을 떠날 때 자기에게 하던 동포들의 미련과 함께 분수가 쉬임없이 솟구치고 있다.

참관자들은 이곳에서 제일동포자리를 환롭에 따뜻이 안아주시며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저마다 눈시울을 적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본사기자



# 인류자주위업의 영원한 태양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숭고한 국제주의적 이리로 온 세계 자주화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인류가 넓은 가장 걸출한 위인 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세계 5대륙에 금이 쳐 흐르고 있다.

최근 갑비아공화국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독립투쟁에 물심 탐방의 지지 성원을 보내 주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영원할 것이다며 아프리카인들은 오늘도 주석께 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며 뜨겁게 말하였다.

세월이 흘러 수록 더욱 열렬해지는 위인

청송의 목소리는 탁월한 사상과 명도,

고마한 덕망으로 인류해방투쟁사에 불멸할

공헌을 하시고 동서고금에 없는 위대한 국제

주지의적의리의 한평생은 빛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자주의 태양으로 우러러 떠드는 세

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흥모십의 분출이다. 위대한 혁도자 김경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으로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 민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구한 혁명 생애의 전 기간 비범한 예지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폭넓게 벌어진 견학에는 20세기의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 하는 나라, 진보적인 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주제와 국제주의적의리의 승고한 모범

을 창조하시였다.

반제자주위업의 결출한 원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류에게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혁신으로 세계 혁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0년대에 벌써 일제의 중국대륙침략 등을 폭로분쇄 하기 위한 김회선월도부설 반대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었으며 중국반동군벌들의 광란적인 반조작으로 일어난 『중동월도 사건』에는 쏟력을 옹호하기 위한 특명으로 진보적인 조종청년 학생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동반과 남북만을 종횡무진하시며 여러 원정들과 중국인민부대들의 공동군사작전들을 승리적으로 조직지휘하시여

항일련합전선을 투쟁해 더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후날 항일련군의 지휘관들이

이 동북항일 혁명의 전로경이 김일성동지의 혁신적인 투쟁과 사심없는 지원에 개척되고 승리해왔다고 격찬한

데서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 동강군정 학습을 비롯한 여러 계기

에 애쓰면서 민족인민행장을 적극 지원하는 조직지도사업을 전행

하도록 하시었으며 일제가 도발한 『하산

호사건』과 『할린풀사건』에는 『쓰련

을 무장으로 응호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첫 사회주의 국가를 응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활동들을 조직전개

하였다.

이전 쏘련의 내각수상 쓰랄린은 김일성동지의 동방에서 제국주의 침략으로 부터 쏟력을 펴고 싶어, 무장으로써 응호하여 주신 찬사를 푸로마트라야국제주의자이며 공산주의자의 귀감이 되어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도

역사적인 담화 『중국인민의 혁명률성을 적극 지원하자』를 발표하시고 우수한 군정간부들을 비롯한 수십만 명의 피끓는 조선의 아들들이 장출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로부터 해남도 상륙작전지의 격전장마다에서 무미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중국인민의 국내해방전쟁승리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시였다.

몸소 중국의 단통에까지 가시여 전선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전술책들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무기와 탄약, 폭약과의 약품 등의 군수물자들을 보내주시고 해방군부대들과 수십만 t

의 물자들이 우리 나라를 거쳐 수송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중국인에게 보내주신 물심 탐방의 이

터한 지지성원을 두고 중국의 모택동주석과 주은수에게는 중국의 5성경기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붉은 피가 스며있다고

감회 깊이 언급하신 하였다.

1950년대 후반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는 미제와 직접 맞서 사회사업을 건설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재제민족해방운동의 강

화발전에 거대한 의지를 부여하고 알제리

를 비롯하여 쓰촨을

생성성으로 도와주셨다.

미제가 꾸비혁명을 요람기에 암살할

목적으로 『까리브레 위기』를 조성하던

1960년대초 경애하는 수령님의 송고한

뜻을 빗고 물류와 공화국정부는 성명과 각

종 집회들을 통하여 꼬바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현대화를 표시하였으며 온갖 형태

의 지원을 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3(1964)년 8월 미제가 『비크보만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는 이를 규탄하는 공화

국 정부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고

1966년 10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월남인민의 대회』로

시작된 『연대』에 빠져나온 혁명당을

제천명 하시였다.

영웅적 행사를 비롯하여 월남전선으로 달려나간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미제

공중비행들을 조직화하여 주제

를 달려나간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미제

영원히 빛날것이다.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의 위대한 스승

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

시였다.

뿔불가담운동 창시자의 한 사람인 전

유교슬라비아대통령 씨도가 자주의 현세

에는 김일성주석의 존중파만 결부시키

한다고 하면서 우리 수령님을 세계혁명파

를 비롯한 독립과 자주의 새 시대가

펼쳐지도록 하였다.

『뿔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

례한 반제혁명령량이다』와 『뿔불가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등

의 저작자들은 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원칙과 과업들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뿔불가담운동

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등

의 저작자들은 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원칙과 과업들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얼마전 중국에서 『티베트 백만 노동 해방 기념일』과 관

련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중국중앙정부는

티베트지방정부와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얼마전 라마를 비롯한 분립

주의세력의 투쟁도 동반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

1950년 3월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할 때 대한 합

의 서를 체택하였다.